

## ‘광주·전남 폭설’ 교통·낙상사고 잇따라

출근·등교 조정 권고...오늘까지 3~10cm 더내려  
 무안 19.5cm 최고...양식장 등 피해 예상·신속지원

광주와 전남지역에 이틀동안 적설량 20cm에 이르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 교통·낙상 사고 등 피해가 잇따랐다.

광주와 전남도는 재난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형 장비 등을 동원해 제설작업에 나섰다. 일부 도로는 차량 통행을 제한했다.

광주와 전남지역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눈이 내려 오후 3시 기준 무안 해제 19.5cm, 함평 월야 13.5cm, 영광 13.4cm, 광주 남구 13.4cm, 장흥 유치 11.3cm, 신안 10.6cm, 장성 10.3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무안지역에는 대설경보가 유지되고 있으며 나주·강진·해남·완도·영암·함평·영광·목포·신안·진도지역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눈은 이날 오후 늦게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보돼 대설특보 지역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까지 광주와 전남서부지역 3~8cm, 전남 서해안 10cm, 전남 동부 1~5c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며 기온은 오전 영하 1도~영하 9도, 오후 2~6도가 예상된다.

이날 오전 10시 21분께 북구 용두동에서 길을 걸던 A씨가 빙판길에 넘어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같은날 오전 9시 55분께 북구 두암동에서도 B씨가 눈길에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남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7시 11분께 목포시 상동 도로에서 남성이 환자 1명이 눈길에 넘어지는 등 7건이 접수됐다.

고속도로 등 교통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운전자 등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 10시 3분께 전남 강진군 도암면 도로에서 승용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오전 9시 13분께 순천시 주암면 호남고속도로 승주IC부근과 광주대구간고속도로에서 승용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2명이 다쳤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광주

와 전남지역 주요 도로는 결빙돼 광주 무등로 시계탑 삼거리부터 원호사까지 8.9km구간, 송강로 충장사~금곡마을 입구 1.9km구간의 도로가 통제됐다.

또 완도군 소안면 미라재 2km 구간과 진도군 의신면 두목재 3.5km구간, 의신면 초평재 1km구간, 담양 창평면 노가리재 7.5km 구간이 통행제한 조치 가 내려졌다.

무안·광주공항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어 저시정 특보가 발효됐으며 일부 항공기가 결항됐다. 목포와 완도지역의 해상 여객선 등 선박 운항은 통제되고 있다.

오후 들어 눈이 녹으면서 도로 통행제한은 해제됐으며 항공편도 운항을 재개했지만 해상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 여객선 등의 운항은 19일 오전까지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지역에 내리던 눈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밤사이 다시 내림에 따라 19일 오전 출근·등굣길 불편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교육청·소방·경찰 등과 관계 기관 회의를 열고 기상 상황에 따라 등교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공무원 출근 시간은 1시간 가량 늦췄으며 거주지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비상 소집돼 눈을 치우고 출근한다. 출근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버스 등의 증편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전남도는 3917명의 제설 인력과 대형트럭 등 1571대의 제설 장비를 동원해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안전 점검’ ‘양식어류 월동장 이동조치’ ‘어선 입출항 통제’ ‘해안가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조일상 기자

광주 우리밀 육성사업 성과	2면
野 이태원 국정조사 본격 착수	3면
이차부담에 청약시장 침체	4면



단풍과 눈  
 광주 지역에 대설 특보가 내려진 18일 오전 광주 동구 푸른길 공원에서 시민들이 설경을 감상하며 산책하고 있다. /뉴스

## 밀가루 대체 ‘가루쌀’ 본격 생산한다

전남도 내년 700ha 재배...밀가루 대체에 적합

전남도가 최근 농업인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 ‘가루쌀 재배’와 저탄소 농업 추진 준비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가루쌀(분질미)은 기존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밀처럼 바로 빵이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쌀이다. 밀가루 대체에 적합하고 6월 말 늦은 이앙이 가능해 이모작에 유리하다.

전남도는 식량정책 발전방안 워크숍을 지난 16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고, 가루쌀 재배단지 조성 사업과 저탄소 논물 관리 기술 등을 소개했다. 18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가루쌀 재배 등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과 시·군 담당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노석원 농촌진흥청 박사는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논물관리 기술로 벼 재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를 감축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최경진 식량산업협회 이사는 ‘가루쌀 재배 특성과 매뉴얼’ 설명을 통해 농업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3년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전국 최다 13개 경영체가 선정돼 사업비 27억 4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전남도는 총 사업비 62억원 중 전국 최다인 44%를 확보한 가운데 내년 700ha 면적에서 본격적인 가루쌀 재배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재배를 2023년 2000ha, 2026년까지 4만2000ha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시장 전망도 밝다.

내년부터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과 밀 또는 동계 조식작물 이모작 재배를 하면 1ha당 250만원을 지원하고, 가루쌀만 재배하면 1ha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박종배 기자

## ‘마로해역 어업권 40년 분쟁’ 진도군 승소

해남 어민들 생존권 걸려 갈등 불씨 여전

전국 최대규모의 김양식어장인 ‘마로해역’의 어업권을 둘러싼 전남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의 40년간 분쟁이 진도군의 승소로 종결됐다.

16일 진도군과 해남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남 해남군 어민 174명이 제기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정사적 절차이행 및 어장인도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진도군 어민들의 어업권을 인정한 1·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진도군 어민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진도군은 해남군이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마로해역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데 이어 어업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은 1·2심 판결과 무관하게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합의해 40년간 갈등을 빚어온 마로해역 어업권은 진도군 어민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진도군과 해남군 사이 1370ha의

전국 최대규모의 김양식어장인 마로해역 어업권을 놓고 벌어진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간 분쟁은 지난 1980년초부터 시작됐다.

해남군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자 이에 진도군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분쟁은 격화됐다.

결국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양식장 1370ha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진도군에는 그 댓가로 동일면적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줬다.

문제는 10년간 조건부 합의기간 만료인 지난 2020년 6월 7일을 앞두고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양측 어민들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해상에서 충돌하는 등 대립을 이어왔다.

법원의 2심에 이어 13개월 동안 끌려온 대법원의 판결은 진도군의 승소로 종료됐으나 해남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어업권 분쟁의 불씨는 여전하다. /진도=박재영 기자

# 생활속 물 절약 함께해요!

